『종교와 문화』 제3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8, pp.105-137.

19-20C 청도 밀양박씨의 향약과 계*

박 종 천**

1. 머리말
2. 조선 중기 청도 밀양박씨의 사회적 활동
3. 근세말 청도군의 흥학운동과 박홍묵의 향약 활동
4. 일제강점기 밀양박씨의 계 활동과 근대적 양상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유교문화는 근대로 진입하면서 유교적 전통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반이 상당히 해체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는 아예 없어졌고,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향촌의 지역 공동체도 황도(皇道)유학의 이념과 경학원(經學院) 제도를 중심으로 강요된 근대질서에 편입되면서 변질되거나 형해화되는 양상이 강했다.[1)]

이렇듯 지연과 학연이 와해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기댈 만한 곳은 문중을

* 이 논문은 2017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산하 종교문제연구소 동삼운해유교연구 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았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부교수
1) 김순석, 『근대 유교개혁론과 유교의 정체성』(모시는사람들, 2016) 참조.

중심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였다. 가문은 조선시대 재지사족(在地士族)이 향촌의 사회적 위계질서 내에서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권위 및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근간이었으며,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였다. 가문은 향약(鄕約)과 계(契)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문화적 권위를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친족의 혈연적 유대를 넘어서서 향촌의 자율적 공동체 시스템의 안정적 질서를 구현하는 지역 공동체의 교화(敎化)활동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가문의 공동체 활동은 혈연공동체가 지역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장악하는 비결인 동시에,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향권(鄕權)을 유지하고 사회적 권위를 지속하는 유교문화적 기반이기도 했다.

향약과 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중앙정부의 타율적 지배와 다른 재지사족 중심의 자율적인 향촌 공동체 시스템이라는 측면과 재지사족의 배타적인 향권 장악이라는 측면을 강조해 왔다.[2]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재지사족들은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삼아 주자학의 학문적 성취와 의병활동의 사회문화적 권위를 통해 향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문중의 혈연 공동체는 다양한 계와 향약을 통해서 향촌의 지역 공동체 내에서 유교적 교화의 주체로서 예교(禮敎)적 위계질서를 정립하고자 했다. 타율적인 정부 주도의 향촌 지배와는 달리, 계와 향약은 자율적인 향촌지역의 지역 자치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연구가 지닌 폐쇄적-갈등론적 시각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계와 향약이 지닌 개방적 가능성과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는 관점이 요청되고 있다. 친족이나 향촌 내 상층부의 특권적 이익을 폐쇄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해되던 계와 향약에 대한 이해를 공생적인 사회적 안전망

2) 김인걸, 「조선후기 鄕村社會統制策의 위기 -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58호(1984); 박경하, 「조선 후기 향약연구 -향약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서울: 한길사, 1998); 김무진 외, 『한국 전통사회의 의사소통체계와 마을문화』(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정승모, 「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정진영, 「조선시대 성리학적 향촌자치제의 전개와 추이」, 『한국유학사상대계Ⅸ: 사회사상편』(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참조.

확충과 개방적인 네트워크 활성화의 차원에서 새롭게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3)]

한편, 향약과 계는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치면서 조선이 해체되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드는 근대화 과정에서도 향촌 공동체 내부에서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지키는 중요한 통로이자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향약과 계에 대한 연구에 비해 대단히 미미한 형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대의 유교문화와 친족과 향촌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학계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아가 근대 유교문화와 향촌의 사회적 활동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파생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9세기 조선 말기부터 20세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청도지역 밀양박씨 소고공파의 향약과 계 활동은 친족과 향촌의 유교적 사회문화가 전개되고 변용되는 양상을 탐색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청도(淸道)는 전통적으로 경상좌도로서 성주-대구-선산을 잇는 성리학 문화권에 속하지만, 경상우도의 영향도 일정하게 나타내는 고장이다. 사상적으로도 이황(李滉, 1501~1570)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식(曺植, 1501~1572)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지역이다. 밀양박씨 소고공파는 조선 전기 청도지역 정착과 임진왜란기 의병활동과 조선 후기 활발한 종족활동 등을 통해서 청도지역의 대표적인 문중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점을 주목하여 기존 연구는 주로 조선 전기 청도 정착과정과 조선 후기 의병활동과 족보 편찬 중심의 종족활동에 집중되었다.[4)] 이를 통해 청도

---

3) 박종천,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광주안씨 종계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26(2013),; 박종천, 「조선시대 예안 광산김씨의 친족활동」, 『국학연구』 30(2016); 박종천, 「조선 중기 광산김씨 예안파의 의례 실천과 일상생활 -『계암일록』과 『매원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3(2017); 박종천, 「공감과 개방의 문화공동체, 석천마을」, 한도현 외, 『석천마을과 공동체의 미래』(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박종천, 「상생의 마을공동체 - 동계와 향약」, 『양동마을과 공동체의 미래』(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참조.

4) 박홍갑, 「朝鮮初期 密陽 在地勢力의 淸道移住와 定着過程: 密陽朴氏 嘯皐公派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0(2004); 김성우, 「密城朴氏 嘯皐公派의 淸道 정착과 宗族활동」, 『진단학보』 91(2001); 장동표, 「16, 17세기 청도지역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부대사학』 22집(1998); 정재영, 「'신양반' 의식의 형성과 재실의 건

에서 밀양박씨가 높은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게 된 배경이 일정하게 해명되었다.

그러나 밀양박씨의 친족활동은 위선사업 외에도 다양한 계(契)활동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청도 밀양박씨 내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파(支派)의 경우에도 그러한 흐름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친족활동을 넘어서서 향교(鄕校)나 향청(鄕廳) 및 서원이나 서당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자율적 지역 교화 및 교육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활동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약과 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흥학(興學)활동이나 친족활동이 사회적 기여로 확장되는 양상에 대한 검토는 미미하다. 또한 조선 말기 이후 일제 강점기 이 문중에 대한 연구는 중산 박장현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일부 연구가 있을 뿐이며,[5] 이 문중의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사회 교육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계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친족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친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폐쇄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내부의 개방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친족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문중의 다양한 고문서들과 문집 및 족보 등을 1차 자료로 삼아 친족활동과 향촌활동의 양상과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도 향안(鄕案)을 중심으로 16세기말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이 문중 인물들이 지역사회를 주도했던 양상과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여 19세기말 20세기초에 걸쳐 이루어졌던 정부의 향약 확대정책이 청도군에서 시행되는 양상을 분석하면서 이 문중 인물들이 청도군의 교육 전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시천(蓍泉) 박홍묵(朴洪默, 1844~1904)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차북면 면학계(面學契)가 중앙 정부의 『향리약속(鄕里約束, 1891)』「면약의주(面約儀註)」에 따라 면약(面約)을 시행하는 양상을 해명할 것

립: 청도군 수야리의 사례」(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참조.

5) 금장태 외, 『中山 朴章鉉 硏究 -日帝下 民族主義 史學者-』(민족문화사, 1994).

이다. 이는 향촌 사족 중심의 자율적 향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 정부 중심의 『향리약속』이 19세기말에 전국적으로 반포되고 시행되었을 때 실제 향촌 단위의 구체적 반응에 대한 연구로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달성향교의 사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6)]

둘째, 친족 단위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역할을 하는 친족활동의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친족계의 양상을 분석하되, 지암(芝庵) 박운묵(朴雲默, 1851~1913)을 비롯하여 이 문중 인사들의 친족계가 가난한 종중 인사들을 위한 친족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양상을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박홍묵의 양선계(養善契)와 양사계(養士契) 및 덕천서원수계(南溟先生修契), 후강(後岡) 박재시(朴在時, 1874~1938)의 이택계(麗澤契)와 중산(中山) 박장현(朴章鉉, 1908~1945)의 문화학당 등 교육활동의 혜택을 친족단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2. 조선 중기 청도 밀양박씨의 사회적 활동

조선시대 청도의 사족사회는 성리학과 의리명분을 이론과 실천의 중심으로 삼은 사림과 의병 활동을 주도한 가문들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청도지역은 본래 청도 김씨를 비롯하여 신, 백, 이, 조 등 토성(土姓)들이 거주했으나,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밀양박씨, 김해김씨, 재령이씨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외래 사족들이 입향하면서 향촌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제자로서 대표적인 사림이었던 김일손(金馹孫, 1464~1498)을 배출한 김해 김씨를 비롯해서 고성 이씨, 광주 김씨, 흥해 최씨 등이 이거해서 자리잡았다. 16세기에는 기묘사화 이후 처사로 살았던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 1479~1551)와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 1479~1560)이 학문적 성취를 이루

6) 김경용, 「이헌영의 興學활동 기록과 「達成鄕校講會錄」」, 『한국교육사학』 28권 1호 (2006), 327-346.

고 동창(東倉)을 지어서 읍치(邑治)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조세 운송의 고통이 컸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공로로 향현(鄕賢)으로 추대되어 선조대에 선암서원(仙巖書院)의 배향자가 되었다. 이후 청도 밀양박씨 소고공파는 김해김씨에 버금가는 사회적 인정을 받으면서 청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7] 임진왜란 이후에는 의병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주도한 동계(東溪) 이운룡(李雲龍, 1562~1610)의 재령이씨와 더불어 박하담의 손자인 경신, 경전, 경윤, 증손자인 찬, 숙, 린, 구, 훤, 지남, 철남과 성와(城窩) 박하청(朴河淸 1481~1541)의 증손인 박근 등 14의사(義士)를 배출하면서 밀양박씨 소고공파는 일약 청도군의 명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8]

동창 설치를 기점으로 청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의병 활동을 계기로 지역의 중심 가문으로 성장한 밀양박씨 소고공파 일문들은 조선 후기 내내 열심히 위선(爲先)사업을 전개하여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청도사회에서 그 위상이 급증했다. 족보의 편찬과 사우(祠宇)의 건립 및 목판본 출판을 추진하면서 조상의 위업을 계승하고 종족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며 타종족과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은 후손들의 경제적 기반과 학문적 능력 및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이었다.[9] 조상의 위업을 현창하는 사업은 후손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다.[10]

청도 밀양박씨 소고공파는 입향조 소고공(嘯皐公) 박건(朴乾) 이후 청도면 이서면 수야리에서 동족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는 1933년 조선총독부의 『조선의 취락』에서 밀양박씨 120여호의 동족마을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1년 『청도군지』에는 밀양박씨 115호가 전체 184호 중 60%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

7) 박홍갑, 「朝鮮初期 密陽 在地勢力의 淸道移住와 定着過程: 密陽朴氏 嘯皐公派를 중심으로」 참조.

8) 김성우, 「密城朴氏 嘯皐公派의 淸道 정착과 宗族 활동」, 185-198 참조.

9) 김성우, 「密城朴氏 嘯皐公派의 淸道 정착과 宗族 활동」, 215-221 참조.

10) 김성우, 「密城朴氏 嘯皐公派의 淸道 정착과 宗族 활동」, 216.

이러한 족세의 형성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소고공파의 박홍묵은 밀양박씨들이 도주(道州)로 불리는 청도에 이거하여 온 뒤 "이 고을의 반을 차지했다"고 평가한 다음, 입향조의 입향 이후 청도의 모산과 그 북쪽인 수야(水也)에서 중촌(中村), 동암(東巖), 입암(立巖), 황연(黃硯), 임당(林堂) 등으로 14의사(義士)의 분파가 퍼져나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김해김씨, 재령이씨 등과 더불어 청도의 대표적인 사족으로 성장한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과감하게 드러내었다.[11)]

실제로 소고공파는 입향조 박건의 독자인 박승원이 진양하씨 경절공의 딸에게 장가가서 수야의 재산을 계승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기묘사화 때 소요당 박하담, 성와 박하청, 병재(甁齋) 박하징(朴河澄, 1484~1566) 삼형제의 자손들이 각각 이서면 학산리와 금천면 신지리 일원의 소요당파, 금천면 신지리 일원의 성와공파, 이서면 수야리 일원의 병재공파로 자리를 잡고 500년이 넘도록 세거하고 있다. 나아가 임진왜란(1592~1598) 때에는 공동체를 위해 선도적으로 희생하는 의병활동을 벌여서 14의사의 명예를 획득하였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쟁의 여파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양반들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향약이 실행되거나 중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도지역에서도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지방자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향소, 향청, 향교, 서원 등으로 대표되는 교화와 교육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요 문중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16세기에 향약이 보급되면서 재지사족들은 향약에 지방자치행정기구인 유향소의 운영 규칙인 향규(鄕規)를 접목시켰으며, 유향소의 향원(鄕員) 명부인 향안(鄕案)도 17세기 전후로 활발하게 작성되었다. 향촌사회의 사회적 주도층이 향안을 통해 그 사회적 지위가 공인되었듯이, 밀양박씨 역시 청도의 향안에 입록되면서 사회적 공인을 얻게 되었다.

---

11) 朴洪默, 『蓍泉遺稿』 卷3, 「道州錄」, 32a 참조.

연도	鄕員	성씨별 분포											비고(향임 외)
		朴	李	金	崔	閔	盧	趙	芮	高	蔣	기타	
1599	23	4	13	2	1	1	1	1					좌수 朴誠, 별감 李廷郁
1600	32	7	14	3	2	1	1	1	1	1	1		
1609	29	7	13	3	2	1			1	1	1		좌수崔, 별감李(2)
1610	36	13	12	3	2	2			1	1	1	元1	좌수朴, 별감李/芮
1614	36	15	11	2	3	1		1	2	1		郭2, 張1	좌수朴, 별감李/朴
1632	67	20	27	3	5	1		1	4	1		郭/孫2, 元1	좌수李, 별감金(2) 校任, 校生
1651	56	21	27	2	1				2			孫1, 元1 潘1	좌수 朴東維, 별감 朴東貞, 李珉
1661	180	58	多	多								본문 참조	1599-1657 11회 正名舊錄
1712	214	76	75	26	4				15			본문 참조	1661, 1693, 1700 正名錄

표1. 청도 향안 입록자 명단

실제로 16세기말부터 18세기초까지 작성되었던 청도 향안을 살펴보면, 17세기 초반에는 임란 의병장이었던 동계 이운룡의 재령이씨를 중심으로 고성이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의흥예씨 등의 몇몇 가문들의 협조로 유향소 혹은 향청이 운영되었으나, 17세기 중반에는 차츰 족세를 확장한 밀양박씨가 인원의 규모면에서 타성을 앞지르게 되었다. 18세기에 가면 족보 편찬을 계기로 조상의 위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세기 이후에는 타성을 압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조선 후기 청도의 사찬 읍지인 『오산지(鰲山志)』가 김해김씨와 밀양박씨를 중심으로 청도의 역사와 문화를 개괄한 것도 청도지역의 문화적 에토스면에서도 밀양박씨가 공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 '청도 향안의 입록자 명단'에 나타나는 인원 구성 변화는 17세기에 이르러 밀양박씨의 사회적 위상이 얼

마나 신장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최초의 청도 향안은 1599년에 작성된 것인데, 토성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고성이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재령이씨, 청도김씨, 김해김씨, 장연노씨, 여흥민씨, 함안조씨 등 17세기 이전에 혼인과 복거를 통해 청도로 이거한 사족 가문들이 확인된다. 청도사회는 이미 구래의 사회적 구성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재편되었던 것이다. 당시 청도를 대표하는 임란 의병장은 재령이씨 출신의 수사(水使) 이운룡이었으며, 좌수는 박계(朴誡)이고, 별감은 이정욱(李廷郁)이었다. 16세기말에는 이운룡과 재령이씨 문중이 청도의 향권을 주도했던 것이다.

1600년 향안에서는 고성이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재령이씨, 청도김씨, 김해김씨, 장연노씨, 여흥민씨, 함안조씨, 의흥예씨, 전의이씨, 아산장씨, 경주최씨 등이 확인된다. 이중 고성이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재령이씨, 청도김씨, 김해김씨 등이 강한 족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병장 출신 가문들이 현저하게 강세를 띤다. 밀양박씨 소고공파에서는 박경전과 박경인 등이 들어가게 되었다. 1609년에도 추세는 비슷해서, 고성이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재령이씨, 청도김씨, 김해김씨, 여흥민씨, 죽산박씨, 아산장씨 등이 눈에 띈다. 이 향안에는 박환, 박찬, 박우, 박선, 박정, 박린, 박근 등 밀양박씨 소고공파 인물들이 7명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1610년도에도 전반적인 추세는 대동소이하나, 박씨가 늘고 이씨가 조금 줄었으며, 원주원씨가 추입되었다. 1614년 향안에는 박숙, 박규, 박황 등 소고공파 3명이 새로 추입되는 가운데 밀양박씨, 재령이씨, 김해김씨 등이 주도하면서 현풍곽씨 2명과 하산장씨 1명이 새로 추입되었다. 좌수는 박씨, 별감은 이씨와 박씨가 맡았다. 밀양박씨가 15명으로 제일 크게 성장하면서 규모면에서 타성을 분명하게 앞지르고 있으며, 좌수와 별감 등에서도 박씨가 주도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1632년에는 밀양박씨, 재령이씨, 고성이씨, 김해김씨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현풍곽씨, 밀양손씨 등이 추입되었다. 고성이씨와 김해김씨는 김종직의 문인으로 각각 이육(李育), 김일손 등의 사림을 배출했으며, 밀양박씨와 재령이씨는 사림파인 박하징과 임란 의병장 이운룡을 배출하였다. 요컨대, 명망있는 사림과 임란

의병장 출신 가문들이 명분을 갖고 청도사회를 주도했던 것이다. 이중 밀양박씨는 20명으로, 거의 1/3에 달한다. 1651년에는 이씨와 박씨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기성반씨가 새로 추입된다. 좌수는 박동유(朴東維), 별감은 박동정(朴東貞)과 이민(李珉)이었다. 향원의 규모와 세력면에서 밀양박씨와 이씨가 압도적으로 향청을 주도하고 있었다. 향원으로 등록된 밀양박씨는 21명에 이르렀다.

1661년 향안에는 1599년부터 1657년까지 11회동안 입록된 180명의 명단이 실려있는데, 밀양박씨 58명, 고성이씨 46명, 경주이씨 14명, 의흥예씨 8명, 현풍곽씨, 청도김씨, 김해김씨, 재령이씨 각 5명, 기성반씨, 원주원씨, 전의이씨 각 3명 제주고씨, 고령김씨, 의성김씨, 여흥민씨, 하산장씨 각 2명, 장연노씨, 죽산박씨, 밀양손씨, 안동손씨, 아산장씨, 함안조씨 각 1명과 본관 불명 성씨 3명이다. 사림 출신과 의병장 출신의 가문들을 중심으로 밀양박씨, 고성이씨, 경주이씨, 의흥예씨, 청도김씨, 김해김씨, 재령이씨 등이 강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중반에 이르면, 밀양박씨 소고공파에서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모습이 확실히 눈에 띈다.

1712년 향안은 1661년, 1693년, 1700년 청도의 향청(鄕廳)의 향원(鄕員) 214명의 명단을 기록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밀양박씨, 경주이씨, 고성이씨, 의흥예씨, 청도김씨, 김해김씨, 경주이씨, 재령이씨 가문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박씨가 76명, 이씨가 75명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김씨 26명, 예씨 15명, 손씨 6명, 곽씨 5명, 최씨 4명, 원씨 3명, 반씨, 장씨 2명 등이다. 밀양박씨가 단일 본관의 성으로 타 문중의 2-3배 이상의 인원이 향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18세기 전반에 이르면, 밀양박씨의 사회적 위상은 분명히 청도지역에서 적어도 양적으로는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한 사회적 위상은 다시 종족의 활발한 위선작업을 기반으로 선암서원을 비롯한 각종 재실과 사우 등 의례적 상징물들로 구현되었으며, 족보와 문집의 편찬이라는 출판사업을 통해서 강화되었다.[12] 청도 밀양박씨의 친족활동은 17세기 전반까지 박경전(朴慶傳)계가 주도하다가, 17세기 후반부터는 보리미 일대의 박경인계, 곧 박태한-박심휴

계가 앞장서게 되었으며, 19세기 초반까지는 박윤덕(朴允德)이 종족 활동을 관장하다가 19세기 전반부터는 섶마루에 세거한 박숙 계의 박정하, 박정주 형제가 이끌었으며, 그 다음 세대는 박성묵, 박시묵이 주도하게 되었다.[13]

3. 근세말 청도군의 흥학운동과 박홍묵의 향약 활동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 청도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유학진흥책과 향약정책에 협조하는 양상의 새로운 유학 교육과 향약 실천이 생겼다. 청도군(淸道郡) 차북면(次北面: 현재의 伊西面) 금촌리(琴村里)에 살았던 시천 박홍묵은 경사도관찰사 경와(敬窩) 이헌영(李鑢永, 1837~1907)과 청도군수 이건용(李建鎔, 1870~?) 등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청도군의 학당(學堂)을 중건하고 차북면의 면약(面約)을 실시하는 데 앞장섰다.[14] 이 면약은 조선 후기에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율적 향약에서 수령 중심의 주현(州縣)향약으로 전환된 흐름 가운데 면 단위에서 실행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조선 후기, 특히 세도정치(世道政治)가 횡행한 19세기에는 영남지역 남인(南人)들은 벼슬길에 오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소수의 벌열가문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관직과 관직 등용의 통로였던 과거시험의 길목이 더욱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 좁은 문이라도 통과하려다 보니, 지방의 공식교육기관인 향교는 입신출세(立身出世)를 위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공령(功令)에 종사하고 사장(詞章)이나 익히면서 명리(名利)를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15]

---

12) 김성우, 「密城朴氏 嘯皐公派의 淸道 정착과 宗族 활동」 참조.

13) 김성우, 「密城朴氏 嘯皐公派의 淸道 정착과 宗族 활동」, 210.

14) 朴洪默, 『蓍泉遺稿』 卷4, 「墓碣銘〔幷序〕」, 『密城朴氏嘯皐公派世譜』 참조. 박홍묵은 박하담의 셋째 손자인 용연(龍淵) 박경인(朴慶因, 1542~1592)과 그 아들 괴정(槐亭) 박선(朴瑄, 1571-1614)의 '부자창의'(父子倡義)로 이름난 소고공파의 지평공파(持平公派) 출신으로, 박경인이 입촌했던 청도군 이서면 금촌리(琴村里) 모산마을〔牟山里〕에서 태어났다.

15) 朴洪默, 『蓍泉遺稿』 卷3, 「鄕約序」, 21a 참조. 대야(大埜) 류건휴(柳健休, 1768~

또한 조선 후기 주현 향약은 이상과는 달리 실제로 수령이 지역사회의 향권(鄕權)을 장악한 재지사족과 일정하게 타협을 한 산물로서, 향교와 향약을 주관하는 사족들이 각각 교파(校派)와 약파(約派)로 나뉘어서 이해관계의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관찰에 의하면, 향약의 폐해는 능력 없는 수령이 토호(土豪)와 향족(鄕族)에게 휘둘려서 보성군의 사례처럼 교파와 약파가 서로 권세와 이익을 다투도록 방치한 결과 "향약의 피해가 도적보다 심하다"고 비평하기도 할 정도였다.16)

이런 상황 가운데 박홍묵은 학당을 중건하고 차북면의 향중공론(鄕中公論)을 주도하여 향약(鄕約)의 삼임(三任)을 정하고 의례를 실행했다.17) 그는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청도군 차북면 면약의 강장(講長)이 되었으며, 예일기(芮一基)가 약장(約長)이 되고, 김용재(金龍在)가 직월(直月)이 되었다. 이는 밀양박씨, 의흥예씨, 청도김씨 등 면(面)을 대표하는 문중 분포를 적절하게 반영한 약중(約中)의 구성이다. 박홍묵은 강장으로서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파와 약파가 갈등하는 다른 사례들는 달리 흥학활동과 향약의 시행을 조화롭게 운영하려고 했다.

또한, 박홍묵은 수령의 향약 실천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명정(名帖)을 만들고 면약(面約)의 계안(契案)을 작성했으며, 약간의 재물을 마련하여 약회(約會)를 열 때 필요한 비용을 댔다. 장보(章甫: 儒生)들과 면약을 읽고 난 뒤 이어서 상읍례(相揖禮)를 행하였으며, 향약의 4대강목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을 구현하는 모든 의절을 『향리약속(鄕里約束, 1891)』의 「면약의주(面約儀註)」대로 철저하게 실천함으로써 한 동네〔坊〕 차원이 아니라 한 고을〔鄕〕의 법(法)으로 보편성을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었다.18)

1834)의 『이학집변(異學集辨)』에서도 사장학에 대한 비판이 별도의 장으로 기술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16) 丁若鏞, 『牧民心書』, 「禮典·敎民」 참조.

17) 이하 설명은 朴洪默, 『著泉遺稿』 卷3, 「鄕約序」, 21ab 참조.

이러한 활동은 병계(屛溪) 윤봉구(尹鳳九, 1681~1767)가 1725(영조 1)년에 청도군수였을 때 행했던 향음주례(鄕飮酒禮)로서 선비를 양성하고 풍속을 선하게 만들었던 모범을 본받겠다는 다짐의 반영이었다.[19] 실제로 박홍묵은 『향리약속』의 반포의 흐름에 맞추어 먼저 면약을 강(講)하여 면학계(面學契)를 조성했다.[20] 이를 통해 『주례(周禮)』「대사도(大司徒)」에서 지방교육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향삼물'(鄕三物)과 '팔형'(八刑)을 가르치고,[21] 위정자들은 새로운 『향리약속』의 전면적 실시를 통하여 강목(講目)을 베풀어서 인재를 얻는데, 지역에서 중앙으로 면(面)→읍(邑)→부(府)→중앙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인재 교육과 선발방식의 적용을 추구하였다. 실제로 박홍묵은 청도읍의 북쪽 동네들, 곧 북방(北坊)의 16리(里)가 1면(面)을 구성하는 차북면 단위에서 면약에 따라 면강(面講)을 실시하여 학문을 장려하는 문로(門路)로 삼았으며, 면강을 실시하는 약회(約會)를 조직하고, 계안(契案)을 작성하여 1호(戶)마다 각각 동전 20닢〔葉〕씩 거두어 약회를 열 때 필요한 비용을 조달했다. 이러한 상향식 방식은 향촌의 자율적 지방자치제의 전통적 기원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18세기 이후에는 재지사족이 주도하던 자율적 향약과 동계(洞契)가 사회적 갈등의 격화에 따라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주도하고 재지사족이 협조하는 주현향약이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 지방관들은 향약 규정을 매개로 각면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향촌에서 자율적으로 약정(約正)이나 훈장(訓長)을 맡아서 호응할 때 일정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컨대, 칠곡(漆谷)의 이병전(李秉銓,

---

18) 면약(面約)에서 행하는 자세한 의절(儀節)은 1891년에 이헌영(李鑢永)의 주관으로 펴낸 『향리약속(鄕里約束)』「면약의주(面約儀註)」에 나온다. 박홍묵은 모든 의절을 "선선(旋善), 별특(別慝), 규과(規過), 휼환(恤患)을 한결같이 의주대로 한다〔旋善·別慝·規過·恤患, 一如儀註〕"라고 기록했으므로, 실제로 「면약의주」를 철저하게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朴洪默, 『蓍泉遺稿』 卷3, 「鄕約序」, 21b.

19) 朴洪默, 『蓍泉遺稿』 卷3, 「鄕約序」, 21b.

20) 朴洪默, 『蓍泉遺稿』 卷3, 「面學契序」, 23a-24b.

21) 『周禮』, 「地官·大司徒」. "大司徒以鄕三物敎萬民而賓興之."

1824~1891)은 향촌교화를 위해 향약(鄕約)을 시행했는데,[22] 1889년 칠곡부사(漆谷府使)로 부임한 경재(景齋) 우성규(禹成圭, 1830~1905)와 협력하여 칠곡지역에 향약을 실시하여 일정하게 성공했다.[23]

이헌영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실시한 대구의 달성향교(達成鄕校)의 향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4] 이헌영은 국가적으로 시행할 향리약속을 만든 주체였으며,[25] 실제로 경상도 일원에 그 실행을 요구했다. 청도군수 이건용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면약 시행을 장려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박홍묵은 면약 외에도 양선계(養善契)를 통해 200여명의 유생을 모아서 학문 진흥을 도모했다.[26] 1899(光武3)년 5월 21일에 부임하여 1901(光武5)년 11월 20일까지 청도군수(淸道郡守)로 일했던 이건용과 함께 선비를 양성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유학진흥책으로 퇴락해가는 청도군의 학당(學堂)을 중건(重建)하고 약간의 재물을 출연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했다.[27] 1899년 봄에는 개인적으로 월봉(月俸)을 들여가며 무너져가는 망가진 제기(祭器)를 고치고 비가 새는 학궁(學宮)의 전우(殿宇)를 보수하며 선비들이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향리약속』(1891)에 따라 향리약법을 시행하고 각 면에 강학에 필요한 자금을 배당하여 그 원금을 식리(殖利)함으로써 강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삼는 조치를 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수령과 향촌의 재지사족이 협력하여 흥학활동과 향촌교화의 모범을 이룬 것은 청도군의 오랜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했다. 1900년 4월 같은 고을 사람인 이기화(李基華)와 김용목(金容穆)이 요청했을 때, 박홍묵은 지역사회의 여론에 부응하여 자신의 조상이자 경상도 도사였던 박융(朴融, ?~1424)과 군수 이실(李實)이 조선 건국 당시 향교를 만드는 데 함께 커다란

22) 李秉銓, 『离皐集』, 「家狀」 참조.
23) 禹成圭, 『景齋集』, 卷11, 「漆谷鄕約序」, 5b-6b 및 「行狀」 참조.
24) 김경용, 「이헌영의 興學활동 기록과 「達成鄕校講會錄」」, 327-346.
25) 李秉銓, 『离皐集』 卷1, 「鄕約契序」, 29b-30a.
26) 朴洪默, 『蓍泉遺稿』 卷4, 「養善契跋」.
27) 朴洪默, 『蓍泉遺稿』 卷3, 「興學堂記〔代人〕」, 31ab.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학표기(學表記)」로 작성했다.[28] 또한 1486년(성종 17)에 당시 경상도 도사였던 우당(憂堂) 박융(朴融, ?~1424)은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 1464~1498)을 청도군학(淸道郡學)으로 삼았고, 당시 청도 군수이던 이균(李鈞)도 김일손의 문학이 고명하고 언행이 엄정함을 알고 여러 생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사(學師)로 초빙하였다. 그리하여 1486년 5월에 향교를 중수했을 때 이균이 요청하여 김일손이 「중수청도학기(重修淸道學記)」를 쓰기도 했다.

이러한 설명은 박융, 이실 및 김일손의 관계가 이헌영, 이건용 및 박홍묵의 관계로 계승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수령과 재지사족이 지역사회의 흥학과 교화를 위해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청도군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자부심을 잘 보여준다. 특히 19세기말 20세기초 밀양박씨 문중이 정부 주도의 면약에 적극 호응하고 학당 중건 및 양선계 등을 주도했던 흥학활동과 향촌활동은 청도군에서 지속적으로 향촌사회 내부의 사회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효과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선 중기 향촌의 재지사족이 주도했던 자율적 공동체 활동으로부터 중앙정부와 재지사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유교적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행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29]

박홍묵이 주도했던 향약과 흥학활동은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수령 주도의 주현향약에 호응하여 지역사회의 향권을 주도하려는 관심의 반영이기도 했지만, 경상좌도와 그 영향권 내에 있는 남명학파 후예들 중 노론(老論)으로 전향한 가문들이 노론계 수령들과 협력하여 이루어낸 주현향약의 결실이기도 했다. 실제로 박홍묵이 모범으로 삼았던 향음주례는 노론인 윤봉구가 청도군수였을 때 실행했던 모델의 재구성이었으며, 박홍묵이 협력했던 수령들 역시 노론 계열과 연관된다. 따라서 박홍묵의 향약은 이헌영이 주도했던 대구의 달성향교 사례와 칠곡부사 우성규

28) 朴洪默, 『蓍泉遺稿』 卷3, 「學表記」, 30b-31a.

29) 조선 후기 예론과 예교질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박종천, 「조선 후기 예론의 성격과 전개 양상」, 『한국학연구』 31(2013); 박종천, 「퇴계 예학과 근기실학자의 예학 - 퇴계·성호·다산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1(2012); 박종천, 「조선 후기 禮敎적 시선의 변주와 변화」, 『태동고전연구』 35(2015) 참조.

가 이끌었던 칠곡향약 사례와 더불어 경상좌도 지역에서 노론화된 다수 가문들이 중앙에서 파견된 노론계 수령들과 협력하여 향촌사회의 사회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일제강점기 밀양박씨의 계 활동과 근대적 양상

위와 같은 양상은 청도지역의 특성상 가문 내부에서도 남인계 퇴계학파의 경향을 보이는 세력과 노론화된 흐름을 보이는 세력의 분화와 경쟁관계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청도의 밀양박씨 가문은 본래 박하담과 박하징 형제가 남명 조식과 종유하면서 남명학맥에 가까웠으나, 북인(北人)의 실각 이후 남인 일부는 퇴계학파로 합류했고 일부는 노론화하는 분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근대에는 박홍묵과 박재식 등 노론계 성향을 지닌 측과 박재시와 박장현 등 남인계 경향을 지닌 측으로 동일한 가문 내부에서 분명하게 분화하는 양상을 선보였다.

앞서 설명한 주현향약의 사례 외에도, 노론 계통의 학문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학계(學契)와 서책 목록도 노론화된 밀양박씨 가문의 한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청도의 밀양박씨 가문이 1930년 덕천서원수계에 적극 참여하여 남명 조식의 현창을 통해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덕산비 문제를 중심으로 노론계 유림과 남인계 유림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한 문제도 가문 내부에서 남인 퇴계학파의 성향을 보이는 측과 노론화된 경향을 보이는 측의 분화를 잘 드러낸다.

1) 밀양박씨의 문중계와 친목계

계(契)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여 상부상조를 통해 공동체의 사회적 안전망을 이룩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청도 밀양박씨는 다양한 계 활동을 통해 친족과 향촌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호혜적 네트워크를 활성

화했다. 이들은 조상제사와 문중운영을 위한 문중계(門中契)와 다양한 친목계(親睦契) 및 학계(學契) 등을 결성했다.

조상제사와 문중운영을 위한 문중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봉선계(奉先契)[30], 영모계(永慕契), 모선계(慕先契)[31] 등이 있다. 이러한 문중계들은 문중 소유의 전답인 제전(祭田)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징수하여 수입으로 삼았으며, 그것을 기금으로 문중원들에게 대여하고 이자와 원금을 징수하여 추가수입을 올려서 문중 모임과 제사 등에 사용했다. 이로 인해 조상제사를 위해 시장을 보는 「영모계간시기(永慕契看市記)」가 여러종 남아 있으며, 소종(小宗)의 제사와 소종중의 운영을 위한 사문계(私門契), 사종계(私宗契), 소종계(小宗契) 등도 있었다.

> 종가(宗家)가 가난하니 집안 어르신들과 상의하여 종토(宗土)를 기부해서 그 제사와 접빈(接賓)의 예절을 넉넉하게 했으며, 사종계, 소종계, 봉선계 등 여러 계를 설립해서 금전을 모으고 곡식을 쌓아서 몇십년 동안 어려운 살림을 꾸렸으며, 각각 제전을 마련해서 종족에 대해서는 화목하고 일에 임해서는 잘 가르쳐서 모두 제 마음을 얻었으며, 말씀과 행동이 비루하게 어긋나거나 은밀하고 황급한 기색을 본 적이 없었다.[32]

특히 지암(芝庵) 박운묵(朴雲默, 1851~1913)은 가난한 종가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정성을 들여 사문계와 소종계를 수계(修契)하여 애써서 일하며 제전을 마련했다.[33] 이러한 사례는 가난하여 조상의 제사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종가를 위해서 소종계가 문중 차원의 지원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밀양박씨들은 친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우의나 권면을 위한 다양한 친목

---

30) 朴在植, 『紫南集』, 「奉先契」 참조.

31) 朴洵德, 『晩學集』, 「永慕契序」, 「慕先契序」 참조.

32) 朴在時, 『後岡遺稿』 卷1, 「先考芝庵府君遺事」, 53b. "宗家貧乏, 議于門老, 捐宗土, 以豊其祭祀·接賓之節, 設私宗·小宗·奉先諸契, 積金積穀, 拮据數十年, 而各置祭田, 處宗族和睦, 臨事善喩賢愚·美惡, 咸得其心, 言談·擧止, 未嘗見其鄙悖·隱遽之色."

33) 『密城朴氏嘯皐公派世譜』 卷下, 784. "至性修私門契·小宗契, 拮据, 置祭田."

계를 결성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년계(同年契)와 관부계(觀孚契),[34] 보인계(輔仁契)[35]와 동갑계(同甲契) 등이 있다. 예컨대, 화강(華岡) 박한묵(朴漢默, 1859~1935)은 친지와 형제끼리 화목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사의계(四宜契)로 구성했으며,[36] 진계(進溪) 박재형(朴在馨, 1838~1900)은 박재형, 박수묵, 김태순, 조석호, 정희룡, 박홍묵, 이긍정, 박정목, 김창조, 이우선 등 10명의 동년배들이 무술생동계(戊戌生同契)를 만들어서 우의를 다졌다.[37] 이밖에도 연로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로계(耆老契)[38], 박운묵, 박기묵, 박영묵 등이 결성한 삼우계(三友稧)[39], 존신계, 공애계, 동근종륜계, 동연계를 비롯해서 일종의 동계(洞契)인 박곡동사계(璞谷洞社契)[40] 등 다양한 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41]

한편, 의동계(義同稧, 1929)는 문중계와 친목계의 절충 형태로서 1929년부터 1940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계원들 각자가 협력하여 조상 제사를 모시기 위해 지속적인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계한 것이다.[42] 절목(節目)에는 1) 매 사람마다 각각 11냥(兩)씩 내서 거두어 모을 것, 2) 같은 마음으로 상의하고 애써 일하여 이룰 것, 3) 계전(稧錢)은 추원향화(追遠香火: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를 돕는 데 쓸 것, 4) 전(錢) 44냥을 거두어 모으면 유사(有司)는 빌려주어 빚을 놓을 것 등이 기록되었다. 좌목(座目)에는 박재시, 박재범, 김경배, 박재곤 등이 적혀 있으며, 최초의 유사(有司) 박재범이고, 1930년 1월의 유사는 박재곤이며, 1931년 유사는 박기현이며, 1932년 유사는 박수현이고, 1933년 유사는 박문현이며, 1934년 유사는 박기현이고, 1935년 유사는 박수현이며, 1936년 유사는

34) 朴在植, 『紫南文集』, 「同年契帖序」, 「觀孚契帖序」 참조.
35) 朴在植, 『紫南集』, 「輔仁契帖序」 참조.
36) 朴漢默, 『華岡文集』, 「四宜契帖序」. "名之曰'四宜契'. 寔取「小雅」'宜兄宜弟'之語也."
37) 朴在馨, 『進溪文集』 卷6, 「戊戌生同契案序」.
38) 朴洪默, 『耆泉遺稿』 卷3, 「耆老契序」.
39) 「三友稧案(丙午 1月)」.
40) 朴在馨, 『進溪文集』 卷6, 「璞谷洞社契序」.
41) 『雜著』(한국국학진흥원 기탁 병재공파 기탁 고문서) 참조.
42) 「義同稧(己巳 1月21日)」.

박기현이고, 1937년 유사는 박기현이다. 수입은 한 사람당 11냥씩, 모두 44냥을 모은 것을 기금으로 삼고 빚을 놓는 식리를 통해 수입을 추가하여 각자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를 준비하는 데 쓴 것이다. 제사를 모시는 물적 기반을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친족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보인다.

2) 학계를 통한 교육활동의 사회화

더욱 주목할 대목은 문중의 친족활동을 넘어서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학계의 활동이다. 학계는 문중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는 덕천서원수계(南溟先生修契), 이택계(麗澤契), 군자정강학계[43], 문간계(文簡契) 등이 있다. 박홍묵은 양선계(養善契)를 통해 200여명의 유생을 모아서 학문을 진흥하려고 시도했으며,[44] 박재형은 서원을 중창하고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구휼에 힘썼는데, 향리의 유생을 불러서 학문을 장려하는 문간계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어 상장례와 혼례 비용을 마련해 주는 보화계(保和契)를 수십년간 모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병재공파에서는 양사계(養士契)를 운영하였다. 「양사계책기(養士契冊記)」에는 『주역병해(周易並解)』 총목 합 19권, 『서전병해(書傳並解)』 15권, 『시전병해(詩傳並解)』 17권, 『논어병해(論語並解)』 11권, 『맹자병해(孟子並解)』 14권, 『중용병해(中庸並解)』 2권, 『대학병해(大學並解)』 2권, 『소학병해(小學並解)』 9권〔사오해(四五解) 2권〕, 『통감(通鑑)』 15권, 『주어절요(朱語節要)』 4권, 『구장수간(歐藏手柬)』 1권, 『사문유취약선(史文類聚畧選)』 4권〔3권으로 정정〕, 『신초간(新草簡)』 1권, 『고문진보전후집(古文眞寶前後集並)』 8권, 『소구집(韶溝集)』 7권,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당판(唐板) 합12권 등이 실려 있다.

---

43) 『雜著』 참조.

44) 朴洪默, 『蓍泉遺稿』 卷4, 「養善契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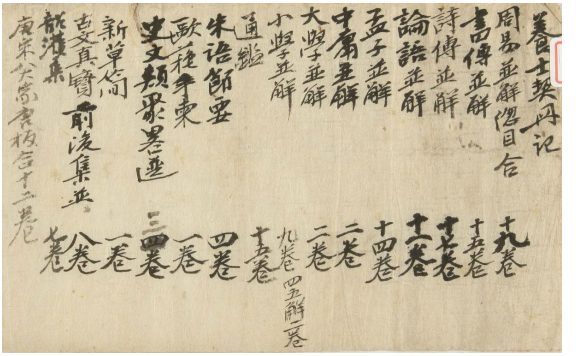

그림 1. 양사계책기(養士契冊記)

양사계에서는 주로 사서삼경(四書三經)의 경전과 주해, 『소학』, 『통감』, 『고문진보』, 『당송팔대가』, 『사문유취약선』 등 과거시험을 위해 긴요한 서책들을 다량으로 갖추고 있었다. 이 목록은 안정복의 『주자어류절요』 등 일부 깊이 있는 주자학 연구를 위한 책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자의 연구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과거시험을 고려하여 구비한 서책 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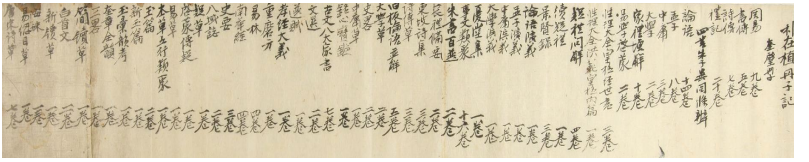

그림 2. 박재식책자기(朴在植冊子記)

이에 비해 경학(經學), 성리학(性理學), 역학(易學) 등에 정통했던 자남(子南) 박재식(朴在植, 1862~1937)의 장서목록은 학습용 장서와 다른 연구용 장서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실제로 「박재식책자기(朴在植冊子記)」에는 경서를 부피를 줄이기 위해 작은 글자로 찍어낸 규벽책자(奎璧冊子)로서 『주역』 9권, 『서전』 5권, 『시전』 7권, 『예기』 20권 등을 포함하여, 『사서주자이동조변』, 『논어』 14

권, 『맹자』 8권, 『중용』 3권, 『대학』 2권, 『가례증해』 10권, 『역학계몽』 2권, 『성리대전황극경세서』 3권, 『성리대전홍범황극내편』 1권, 『의례문해』 4권, 『독의례』 1권, 『경현록』 3권, 『논어연의』 1권, 『맹자연의』 1권, 『중용연의』 1권, 『대학연의』 1권, 『우당집』 1권, 『사문유취』 16권, 『주서백선』 2권, 『상례비요』 2권, 『동파시집』 3권, 『시전초』 3권, 『사판논어병해』 5권, 『대학초』 1권, 『사략』 2권, 『중용초』 1권, 『명심보감』 1권, 『고문팔대가서』 7권, 『문선』 2권, 『선부』 1권, 『효경대의』 1권, 『중마방』 1권, 『역림』 4권, 『남화경』 4권, 『사요』 3권, 『팔역지』 2권, 『의초』 1권, 『계몽전의』 1권, 『역초』 1권, 『본초오행유취』 1권, 『옥편』 2권, 『신옥편』 1권, 『옥휘운고』 1권, 『규장전운』 1권, 『삼략』 1권, 『간독초』 1권, 『백수문』 2권, 『신독초』 1권, 『해주』 1권, 『역총목초』 1권, 『당송시초』 7권 등이 실렸다.

「박재식책자기」에는 경학서, 역학서, 예학서, 소학서, 백가서, 역사서, 지리서, 운서, 의약서, 문집 등이 고루 망라되어 있으며, 각종 서적을 베낀 초록류가 있다. 특히 역학에 밝았기 때문에 『초씨역림』을 비롯해서 다른 학자들이 잘 보지 않는 역학서도 접했으며, 예학서로는 이의조(李宜朝, 1727~1805)의 『가례증해』,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의례문해』와 『상례비요』 등 서인 노론 계열의 예서(禮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를 통해 청도 밀양박씨 가문에서 영남 남인의 학설과는 별도로 기호 서인-노론 예설도 일정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45]

퇴계 학설에 충실하게 따르는 경북 북부 지역과는 달리, 청도 지역은 밀양권의 영향력 내에 있으면서 남명 조식의 영향을 일정하게 수용하였다. 실제로 청도 유림들, 특히 밀양박씨 소고공파 사람들은 1930년에 남명 조식을 받드는 덕천서원의 중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871년 훼철되었던 덕천서원은 1916년 중건을 결의했으나, 1926년 허목(許穆, 1595~1682)이 지은 조식의 신도비인 덕산비(德山碑)의 훼손과 회복문제를 두고 남인 계열의 유림과 노론계

45) 퇴계 이황의 『퇴계집』과 더불어 기호 서인의 대표격인 신독재 김집의 『신독재선생연보』를 함께 소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유림 사이에서 일어난 분규는 만4년의 법정투쟁 끝에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의 관여로 인해 1930년경 조씨문중에 유리하게 마무리되었다.[46]

1930년 9월 초7일에 작성된 「덕천서원수계명부(德川書院修契名簿)」를 보면, 덕천서원 영수인 조철섭(曹哲燮)은 합계 금(金) 51,600원을 영수했는데, 당시 좌목에는 밀양박씨 59명, 죽산박씨 3명, 여흥민씨 2명, 고성이씨 14명, 의흥예씨 8명, 파평윤씨 5명, 함안조씨 4명, 평택임씨 5명, 남원양씨 4명, 아산장씨 5명, 경주최씨 3명, 김해김씨 11명, 동래정씨 1명, 고령김씨 2명, 철성이씨 월간재, 파평윤씨 태안재, 밀양박씨 운천재, 함영조씨 미모재, 평택임씨 기룡재, 남원양씨 안강재 등이 기재되었다.[47] 이를 통해 청도 밀양박씨의 압도적 주도 아래 고성이씨, 김해김씨, 의흥예씨 등이 보조를 취하면서 덕천서원의 중건과 수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이 문중의 활발한 학계 활동은 지역사회 교육활동 참여가 특정 가문이 향촌사회 내부의 사회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산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이 문중이 덕천서원수계에 적극 가담한 것은 조선 후기 이후 퇴계 계열 중심으로 재편된 경상도의 사상적 권위와 문화적 지형 가운데 매우 약화된 남명 계열의 학문적 정체성을 중앙의 노론 세력과 연계하여 새롭게 재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친족의 사회적 위상을 공고하게 하는 문화적 전략이기도 했다.

---

46) 오이환, 「일제시기의 덕천서원」, 『東洋哲學』 32(2009) 참조.

47) 「덕천서원수계전명단(德川書院修契全名單)」에는 오직 22명(18명+4명 청색으로 추가)의 밀양박씨의 명단과 곗돈만 기록되어 있고, 「남명선생수계시입계명단(南溟先生修稧時入稧名單)」은 청도군(淸道郡) 화양면(華陽面) 토평동(土平洞) 행정(杏亭)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김해김씨 11명, 고성이씨 1명, 밀양박씨 1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덕천서원수계전명단」과 「남명선생수계시입계명단」이 「덕천서원수계명부」에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덕천서원수계전명단」은 밀양박씨 병재공파에서 먼저 작성한 것이고, 「남명선생수계시입계명단」은 토평동 행정마을에서 작성된 것이며, 「덕천서원수계명부」는 병재공파에서 밀양박씨 타문중 뿐만 아니라 다른 문중과 재실 것까지 수합하여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박재시의 이택계와 박장현의 문화학당

청도 밀양박씨들은 일제시대에도 친족 내부의 교육활동을 열심히 했으며, 그 활동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타문중과 타지역을 포괄하는 학계의 형태로 확장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후강 박재시의 이택계(麗澤契)이며, 이택계는 그 조카 중산 박장현[48]이 구상한 유학 전통의 근대적 재강화와 교육을 위한 문화학당(文化學堂)의 운영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노론화된 박홍묵과 박재식 계열의 경향과는 달리 남인 퇴계학과 남명학을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전통으로서, 유교의 근대화의 한 흐름으로 정립된다.

박장현은 8살부터 백부(伯父) 박재시에게 글을 배웠으며, 14세인 1921년부터 18세인 1925년까지 보성학원(普成學院)을 마친 뒤 심재(深齋) 조긍섭(曺兢燮, 1873~1933) 문하에 들어가서 8년간 남명 조식 계열의 도학을 전수받았다. 박재시와 교유하면서 박장현을 가르쳤던 조긍섭은 23세 때에는 『남명집(南冥集)』을 중간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여러 선배들과 교유하는 등 퇴계학과 남명학의 일단을 계승하였으며,[49] 학문방향은 통섭과 회통 및 '자득지묘(自得之妙)'를 추구하여 특정한 방향에 얽매이지 않았다.[50] 이러한 회통과 자득지묘적 학문적 방향은 박장현에게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26세인 1933년부터는 송준필(1869~1943), 김재화(1887~1964), 하겸진(1870~1046) 등을 두루 방문하고 시흥의 명교학원인 녹동서원에서 송기식(1878~1949)에게서 강유위의 대동사상을 중심으로 유교적 근대 문명의 가능성을 배웠다. 이 녹동서원은 단군교 혹은 대종교와 연관하여 근대 민족주의 종교화와 연관된 교육기관이었으며,[51] 박장현의 근대 유교 민족주의에 일정한 영향

---

48) 금장태 외, 『中山 朴章鉉 硏究 -日帝下 民族主義 史學者-』, 「中山朴章鉉之墓碣文」, 409.

49) 강동욱, 「남명학: 심재 조긍섭의 남명학 계승의 일단면」, 『선비문화』 11(2007), 92-101 참조.

50) 신승훈, 「深齋 曺兢燮의 學問方向과 經學에 관한 一考」, 『영남학』 12(2007), 123-149 참조.

을 끼쳤다.

박장현은 30세인 1937년부터 고향으로 돌아와서 1939년까지 문화학당을 세우고 당규를 만들고 과업(科業)을 정하여 교육에 힘썼다.[52] 그는 3년 수업시간 동안 경학(經學), 사학(史學), 예학(禮學), 문학, 습자(習字), 고금상식(古今常識) 등의 학과목을 수강하는 문화학당 학규를 제정했으며, 이는 전통적 유교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근대적 변용을 보여준다.[53] 문화학당의 역사교재로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춘추(海東春秋)』는 유학을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하면서도 단군 기원을 쓰는 등 근대 유교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금상식은 중국의 공교학자들과 일본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서양문물을 접한 뒤 유교 전통을 근대적으로 재강화하려고 역사적 상식의 확대를 도모한 것이다.

1939년 일본의 이송학사전문학교(二松學舍專門學校)로 유학하여 일본 학계와 교류하기 전까지 활발하게 펼친 문화학당의 교육활동은 근대적 지형에서 위기를 맞은 유교전통을 일신하여 전통적 성리학에서 근대적 대동사상으로 확대되는 교육 내용의 재구성을 통해 유교 중심의 새로운 근대 문명의 가능성을 확보한 것인데, 이러한 교육활동을 뒷받침했던 사회적 네트워크이자 경제적 기반이 바로 이택계였다.

문화학당의 근간이 된 이택계는 본래 박장현의 주도로 박재시의 교육에 감화를 받은 유생들이 수계한 것이다. 박재시는 그 중부(仲父)인 남파(南坡) 박정규(朴廷奎, 1819~1867)에게 수학했고, 퇴계의 후손인 동정(東亭) 이병호(李炳鎬)에게 학문하는 핵심을 얻었으며, 검약자수(儉約自修)의 태도로 일관했다. 두 동생에겐 자상하게 대했으나, 자질(子姪) 교육에는 엄격하고 철저한 태도로 후생

51) 황영례, 「安淳煥의 儒敎 宗敎化 運動과 鹿洞書院」(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52) 박환, 「1930년대 朴章鉉의 근대사서술 -『海東春秋』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34(2015) 참조.

53) 박환, 「국역 『중산전서』 해제」, 『국역 『中山全書』 I 』(도서출판 선인, 2014), 49-50 참조.

(後生)들을 권면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서 "한 동네 사람들이 예의(禮義)를 이야기하고 염치(廉恥)를 말하는 것이 대부분 선생의 힘"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문중 자제와 마을 유생들의 교육에 힘썼다.[54] 그는 병재 박하징, 수모재(守慕齋) 박적(朴頔), 도계(陶溪) 박경류(朴慶流) 3대로 이어지는 도계공파(陶溪公派)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두문동(杜門洞)에 견주어서 마을 뒷산 앞에 분암(墳庵)을 두고 후강(後岡)을 호로 삼았다.[55]

박재시가 처사적 자세로 교육에 힘쓴 결과, 1934년 겨울에 그의 교화를 받은 친족 자제들과 인척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강학을 하면서 그의 은혜를 기리고자 이택계를 만들었다. 박장현이 서문에서 "이웃 마을에서 오는 자를 막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40여년"이라고 할 정도로 이택계는 수계 전부터 40여년간 교육에 힘쓴 공력이 열매를 맺은 결과였다.[56] 이에 따라 이택계는 친족과 인척이 혈연적 유대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흥학활동을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에 보이듯이, 1934년 음력 3월에 결성되어 1939년 12월까지 지속된 학계(學契)의 기록인 『이택계안(麗澤契案)』에는 밀양 박씨 26, 분성 김씨 1, 의흥 예씨 2, 고령 김씨 4, 남평 문씨 2, 고성 이씨 1, 재령 이씨 1, 김해 김씨 1, 아산 장씨 1, 초계 정씨 1명 등 총42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병재공파의 세거지인 수야리 본동에 살았으나, 달성(達成) 인흥(仁興) 3명, 영천(永川) 신광(新光) 2명, 명동(明洞), 각계, 오산, 밀양 삼랑, 경산 대명, 대전, 대구, 오산, 고촌 등도 각 1명씩 있다.[57]

---

54) 朴在時, 『後岡遺稿』 卷2, 「遺事」, 16a-18a.

55) 朴在時, 『後岡遺稿』 卷1, 「後岡序」, 47b-48a.

56) 『麗澤契案(甲戌三月)』, 「麗澤契序」. "契之言合也, 合其不合者也. 相合之際, 盖有好事存焉, 或族親相合以修睦, 或姻戚相合以論誼, 或友朋相合以講學焉, 則契之爲道不合好乎? 惟我伯父后岡翁嘗授業諸子, 未當留心於秉拂敎誨. 然隣里來者之莫拒, 盖四十餘年于玆矣. 自今觀之, 能成就學業者盖鮮矣, 而其多少識字稍知向方者, 未始非我伯父翁之敎也. 去歲冬, 以修契事及于隣里同業者, 則咸曰甚盛事. 此吾儕夙昔齎志而未遑者也. 同時載名者, 三十七人. 今新春, 遂序齒以定案, 題其名曰麗澤, 取易之兌象辭'君子以朋友講習'之義也. 窃惟同案之人, 或居地稍間, 或投於生計, 不能以時合席, 而各自尊所聞行, 所知有少, 修立於孝悌忠信之道, 庶無愧於麗澤之名矣. 乙亥正月中旬, 密城朴章鉉."

번호	성명	本貫	지역	초기 납부금
1	박기혁	密城人	本洞	50전
2	박사묵	密城人	本洞	50전
3	김현동	盆城人	達成 仁興	50전
4	예우기	義興人	角溪	1원
5	김용득	高靈人	本洞	50전
6	김응주	高靈人	密陽 三浪	1원
7	박원현	密城人	明洞	50전
8	박재순	密城人	本洞	1원
9	박재복	密城人	本洞	1원
10	김병호	密城人	本洞	50전
11	문생채	南平人	達成 仁興	2원
12	김룡하	密城人	本洞	50전
13	박재태	密城人	本洞	50전
14	박영묵	密城人	本洞	1원
15	박재현	密城人	高村	50전
16	박성현	密城人	本洞	1원
17	박재림	密城人	本洞	50전
18	박재경	密城人	本洞	50전
19	박경현	密城人	本洞	70전
20	김종호	高靈人	本洞	50전
21	박재익	密城人	本洞	1원
22	박한묵	密城人	本洞	60전
23	박재욱	密城人	本洞	1원
24	박수현	密城人	本洞	6원
25	김경호	高靈人	本洞	50전
26	박성묵	密城人	本洞	1원
27	박장현	密城人	本洞	4원
28	이종탁	固城人	本洞	4원
29	이광호	載寧人	本洞	50전
30	김용태	金海人	大邱寓	10원
31	박문현	密城人	本洞	1원 50전
32	박재린	密城人	本洞	50전
33	박진현	密城人	永川 新光	1원
34	문희조	南平人	達成 仁興	4원
35	장옥채	牙山人	鰲山	1원
36	박기현	密城人	永川 新光	1원
37	박영준	密城人	本洞	1원
38	박재운	密城人	本洞	1원
39	박영주	密城人	本洞	50전
40	박병현	密城人	本洞	1원
41	鄭時燦	草溪人	慶山 大明	4원
42	芮瑛洙	義興人	大田	2원

표2. 이택계안(『契案艸』)

57) 『麗澤契案』(甲戌 3月).

1934(甲戌)년 납월(臘月)로 기록했다가 1935(乙亥)년 정월(正月)로 수정된 『계안초(契案艸)』는 『이택계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58] 수계시 납입금과 더불어 계원들에게 빌려준 돈으로 식리(殖利)를 해서 얻은 돈이 수입이 되고, 후강 박재시의 초상(初喪) 때 부의(賻儀)를 포함한 지출이 있었다. 수계시 최초의 유사(有司)는 박장현이었으며, 1936(丙子)년 1월 27일 유사는 박재복, 1937(丁丑)년 유사는 박장현, 1938(戊寅)년 정월 16일 유사는 이종탁, 1938년 12월 4일 유사는 박장현, 1939(己卯)년 12월 유사는 박수현이다.

이처럼 1934년부터 1939년까지 지속된 학계인 이택계는 1937년부터 1939년까지 박장현이 운영했던 문화학당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된다. 이택계는 친족의 교육활동이 향리로 확장된 좋은 사례로서, 친족 교육활동의 사회적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범이다. 특히 이택재의 교육활동은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박장현을 통해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적 교육활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5. 맺음말

조선 후기 향촌의 재시사족은 향약과 계를 중심으로 펼치는 흥학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권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확장했다. 청도 밀양박씨는 16세기 이후 처사형 선비로서 사회적 기반을 다졌고, 임진왜란의 의병장으로서 활동하여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였으며,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향청 활동과 다양한 위선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강화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박홍묵은 정부에서 파견한 수령들과 협력하여 흥학과 면약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박홍묵의 차북면 면학계는 19세기말 전국적으로 반포된 『향리약속』이 면 단위에서 시행되는 실상

58) 『契案艸』, "成案日字乙亥正月十七日爲定."

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그러한 협력을 조선시대 청도지역과 밀양박씨 문중의 유구한 전통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내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확장했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의 이택계와 문화학당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도 밀양박씨 문중은 문중의 제사, 친족간 우의와 결속, 친족 자질의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친족계를 통해서 친족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했으며, 박홍묵의 양선계와 양사계 및 덕천서원수계, 박재시의 이택계와 박장현의 문화학당 등 다양한 학계와 교육활동의 혜택을 친족단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호응과 적극적인 동조를 얻었다. 청도 밀양박씨들이 향약과 계를 통해 활발하게 전개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교육활동의 사회화는 조선사회가 해체되어 가던 근세 말기와 일제 강점기에 유교적 공동체의 전통 질서를 향촌사회 차원에서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청도 밀양박씨들의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는 조식의 학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황의 성리학과 기호 노론의 학문도 일정하게 수용하는 회통의 태도와 탄력적인 학문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에 따라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근대에는 박홍묵과 박재식 등 노론계 성향을 지닌 측과 박재시와 박장현 등 남인계 경향을 지닌 측으로 동일한 가문 내부에서 분명하게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박홍묵이 주도했던 향약과 흥학활동은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수령 주도의 주현향약에 호응하여 지역사회의 향권을 주도하려는 관심의 반영이기도 했지만, 경상좌도와 그 영향권 내에 있는 남명학파 후예들 중 노론으로 전향한 가문들이 노론계 수령들과 협력하여 이루어낸 주현향약의 결실이기도 했다. 또한 노론 계통의 학문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학계와 서책 목록 및 덕천서원수계에 참여하여 노론계 유림과 남인계 유림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한 문제 등도 가문 내부에서 남인 퇴계학파의 성향을 보이는 측과 노론화된 경향을 보이는 측의 분화를 잘 드러낸다. 이렇듯 중앙과 지역, 남인과 노론 사이에서 갈라지는 문중 내부의 분화 양상은 학문적으로 남명에서 퇴계로 합류하거나 노론으로 전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통적 자세와 탄력적인 학문정신은 일제 강점기 근대 유학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던 박장현에 이르러, 퇴계학파 전통의 백부 박재시를 계승한 가학의 토대

위에서 회통적 경향을 보였던 조긍섭의 성리학을 흡수하고 다시 근대 공교운동을 전개했던 중국과 조선 및 일본의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확장된 인식의 토대 위에서 근대적 상황 속에서 유교 전통을 근대 민족주의적 종교문화로 새롭게 재천명하고 교육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청도 밀양 박씨, 향약, 계, 박홍묵, 박장현

원고접수일: 2018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8일

참고문헌

1. 1차 자료

「南冥先生修稧時入稧名單」, 「德川書院修契金名單」, 「三友稧案(丙午 1月)」, 「德川書院修契金名簿」, 「義同稧(己巳 1月21日)」, 「稧案草(乙亥 12月)」, 「麗澤契案(甲戌 3月)」, 「朴在植冊子記」, 「養士契冊記」, 『雜著』, 한국국학진흥원 청도 밀양박씨 병재공파 기탁 소장고문서.

朴慶新, 『三友亭實紀』, 2권 1책, 석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朴在植, 『紫南文集』, 6권 3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朴慶胤, 『菊軒先生逸稿』, 2권 1책, 석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朴洵德, 『晩學集』, 5권 1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朴潤德, 『珠巖集』, 3권 1책, 石版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朴廷瀅, 『晩愚文集』, 4권 2책, 石板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朴洪默, 『蓍泉遺稿』, 2권 2책,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朴海默, 『近庵遺集』, 2권 2책, 석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朴漢默, 『華岡遺稿』, 2권 1책,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朴在馨, 『進溪集』, 9권 4책, 석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朴在植, 『紫南集』, 5권 3책, 3권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朴在時, 『後岡遺稿』, 상하 1책, 石版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密城朴氏嘯皐公派世譜』 全2卷, 淸道郡: 密城朴氏嘯皐公派世譜所, 1978

禹成圭, 『景齋集』.

李秉銓, 『离皐集』.

李鑢永 等編, 『鄕里約束』,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도서, 古5210-61.

2. 단행본

금장태 외. 『中山 朴章鉉 硏究 -日帝下 民族主義 史學者-』. 민족문화사, 1994.

김무진외. 『한국 전통사회의 의사소통체계와 마을문화』.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김순석. 『근대 유교개혁론과 유교의 정체성』. 모시는사람들, 2016.

박병련 외. 『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림』. 예문서원, 2004.

박홍갑.『조선조 사족사회의 전개』. 일지사, 2012.
장동표.『조선시대 영남 재지사족 연구』. 태학사, 2015.
정진영.『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서울: 한길사, 1998.

3. 연구논문

강동욱.「심재 조긍섭의 남명학 계승의 일단면」.『선비문화』11(2007): 92-98.
김경용.「이헌영의 興學활동 기록과「達成鄕校講會錄」」.『한국교육사학』28권 1호(2006): 327-346.
김성우.「密城朴氏 嘯皐公派의 淸道 정착과 宗族 활동」.『진단학보』 91(2001): 185-221.
김인걸.「조선후기 鄕村社會統制策의 위기 -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진단학보』58(1984): 97-143.
박경하.「조선 후기 향약연구 -향약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박종천.「공감과 개방의 문화공동체, 석천마을」.『석천마을과 공동체의 미래』(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95-125.
———.「상생의 마을공동체 - 동계와 향약」.『양동마을과 공동체의 미래』(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115-151.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광주안씨 종계를 중심으로-」.『한국실학연구』26(2013): 43-87.
———. 「조선시대 예안 광산김씨의 친족활동」. 『국학연구』 30(2016): 93-140.
———.「조선 중기 광산김씨 예안파의 의례 실천과 일상생활 -『계암일록』과『매원일기』를 중심으로-」.『국학연구』33(2017): 409-452.
———.「조선 후기 禮敎적 시선의 변주와 변화」.『태동고전연구』35 (2015): 287-326.
———. 「조선 후기 예론의 성격과 전개 양상」.『한국학연구』31(2013): 139-168.
———.「퇴계 예학과 근기실학자의 예학 - 퇴계·성호·다산을 중심으로-」.『국학연구』21(2012), 105-138.

박홍갑.「朝鮮初期 密陽 在地勢力의 淸道移住와 定着過程: 密陽朴氏 嘯皐公派를 중심으로」.『백산학보』70(2004): 575-606.

박 환.「국역『중산전서』해제」.『국역『中山全書』Ⅰ』(도서출판 선인, 2014): 26-84.

———.「식민지시대 역사학자 박장현의『중산전서』」.『한국민족운동사연구』78(2014): 315-361.

———.「1930년대 朴章鉉의 근대사서술 -『海東春秋』를 중심으로」.『숭실사학』34(2015): 413-442.

신승훈.「深齋 曺兢燮의 學問方向과 經學에 관한 一考」.『영남학』12 (2007): 123-149.

申正熙.「朝鮮時代 鄕約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오이환.「일제시기의 덕천서원」.『東洋哲學』32(2009): 171-205.

장동표.「16, 17세기 청도지역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부대사학』22(1998): 247-277.

鄭炳碩.「中山 朴章鉉의 儒學觀 -返本改新의 儒學振興策과 孔敎觀을 중심으로-」.『민족문화논총』49(2011): 141-169.

정승모.「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정재영.「'신양반' 의식의 형성과 재실의 건립: 청도군 수야리의 사례」.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정진영.「조선시대 성리학적 향촌자치제의 전개와 추이」.『한국유학사상대계Ⅸ: 사회사상편』(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325-385.

황영례.「安淳煥의 儒敎 宗敎化 運動과 鹿洞書院」.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小林寬.「朴章鉉에 있어서의「檀君」」.『단군학연구』1(1999): 373-400

Abstract

The Community Compacts and Mutual Aid Societies of Milyang Park Family in the Region of Cheongdo in the 19th through 20th Centuries

Park, Jong-chun (Korea University)

The community compacts and mutual aid societies of Milyang Park family in the region of Cheongdo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had showed as follows: (1) The promotions of learning and educational activities of local aristocrats in Joseon dynasty based on the foundation of confucian norms represented how to take control of cultural hegemony in the local area. (2) The community compacts and mutual aid societies of Milyang Park family in the region of Cheongdo built social safety net. And they expended educational activities confined within the relatives, and thereby strengthened the social status of Milyang Park family in the regional community in the 19th through 20th centuries. (3) Janghyun Park inherited the tradition of his family, and thereby developed confucian tradition into national confucianism in modern Korea.

Key Words: community compact, mutual aid society, Milyang Park Family in the region of Cheongdo, Janghyun Park